



민주노총 서비스연맹

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

00지부

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0층

TEL : 847-2006 FAX : 02-6234-0264

학교의 단시간·파견·용역 노동자

**대세 학비노조
가입 열풍!!!**

최근 2,000명 가입!



초단시간, 파견·용역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!

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.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하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. 초단시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노동조합을 통해 결정된다. 파견·용역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대표가 '협의기구'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야 한다. 위탁급식, 위탁돌봄, 청소, 경비, 당직 등 파견·용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쟁취하자!

초단시간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, 근무시간 확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!

'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' 중

초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

- 주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
- 정규직 전환시 가급적 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

노동조합 소속 파견·용역 노동자 대표가 '협의기구' 당사자로 참여!

파견·용역의 경우 8월 '노·사 및 전문가 협의체(협의기구)'를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, 컨설팅팀 지원을 거쳐 노사협약이 진행된다. 노사 협의에서는 전환대상, 전환방식, 채용절차, 임금체계 및 처우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. '협의기구'는 파견·용역 노동자를 사용하는 개별기관 단위를 설치하며, 교육부 및 각 시·도 교육청별로 구성해야 한다.